

사이버 -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들

조건없는 정보공유를 위한 미래사회 모색

박인성

〈Sing A Song Weekly 편집장〉

정보사회, 첨단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거대자본 소프트웨어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 중 대표는 네스케이프이다. 이미 인터넷 브라우저 전쟁으로 유명해진 이들 두 기업은 최근 다가오는 사회에서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로 한판 싸움을 벌일 태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며, 그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거대 독점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메카니즘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분야가 지적 생산물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네스케이프는 지난 4월 그들의 주된 생산품인 '인터넷 브라우저 네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의 소스 코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뺨을 만들 재료와 제조법을 담은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 이상이다. 네스케이프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전세계의 프로그래머들을 자신의 개발자로 만들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점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네스케이프의 이러한 영업 방식은 대자본의 힘을 빌지 않은 방식이다.

네스케이프의 이러한 시도는 위험한 것이 아닐까? 자신의 기술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첨단 기업에게 치명적인 것이 아닐까? 간단한 대답은 '전

혀 그렇지 않다'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다. 이미 많은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이 네스케이프와 같은 방식(혹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GNU 프로젝트인데 흔히 Copyleft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기술이 지적 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Copyright)의 폐해로 인해 독점되는 것에 반대하여, 정보의 공유가 사회적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GNU의 이러한 사상은 그 밖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문제가 된 음악 자료의 mp3(디지털) 배포와 관련, 미국의 한 밴드는 GNU의 자유소프트웨어철학을 참조해 작성한 자유음악철학(Free Music Philosophy)이라는 사상 아래 그들의 음악을 인터넷 상에 디지털로 배포·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여 유명하기도 하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소위 정보사회는 지적 산업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존하는 지적 재산권 제도는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모순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우선 그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현재의 선진국·후진국 간의 격차를 유지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적 재산권의 대부분을 선진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강화는 네트즌들의 커다란 반감을 사고 있다. 자유와 공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던 인터넷의 시민들

에게 지적 재산권법은 매일 가던 길에서 갑자기 통행세를 내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이 진정한 '선'이고(지적 생산자·과학자나 예술가들을 포함하는 등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자유로운 복제(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전송까지 포함한다)가 무지(?)에 의한 권리의 침해였다면, 네트즌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여하한의 불만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이 그 애초 의도인 원창작자 혹은 개발자에 대한 보호에서 비껴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로 그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지적 재산권이라는 '가치'가 지적 생산자에 대한 단순한 보상수단이 아닌 '자본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기는커녕,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독점적 강화를 위한 공세가 일어타고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 이 공세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공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적용시켜 보고 그러한 시도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날 때부터 독창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지식·기술들은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낸 공동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작업들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가 좀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거장 아이작 뉴턴의 말을 때론 읊미하게 된다.

〈김종현 편집간사〉

가상공간 - 민주주의의 실험장

시민 네트워크의 자발적 구축, 민주화의 촉매제

“결국 지역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는 지역의 시민운동 등 지역적인 시민운동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이버라는 접두어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된다는 이미 오래다. 그만큼 사이버스페이스도 관심의 정도를 더해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통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상 공동체이자 새로운 사회이다.

여기서 주요하게 거론될 네트워크의 자유로움과 민주성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공동체의 기본 조건이다. 현실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에도 다양한 조직과 집단, 개인이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도 현실세계에서와 유사한 권력이 작용한다. 그 권력의 작용을 차단하고 보다 자유로운 네트워크의 확보를 위한 시도는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민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 정보망의 지배적 유형인 프리넷은 1984년 미국 오키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시작된다. 이 지역에 위치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의 가정의학과 톰 그룬드너 교수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BS를 개설했다. 그 실험은 매

우 성공적이었으며, 장거리 전화회사인 AT&T와 지역 전화회사인 오키오 벨로부터 시스템의 확장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1986년 7월 최초의 프리넷이 클리브랜드에 구축되었다.

클리브랜드의 성공에서 확신을 얻은 클리브랜드 프리넷의 설립자들은 1989년에 NPTN(National Public Telecomputing Network)이라는 비영리조직을 구성하였다. 이후에 NPTN은 프리넷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프리넷 설립의 지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1996년 7월 현재 NPTN에는 10개국, 70개의 프리넷이 가입하여 운영될 만큼 진전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리넷은 재정적으로 매우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프리넷이 1인당 1일 접속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접속도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프리넷은 대부분 자원봉사 조직으로서 후원자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정보이용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때문이라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 지역에서의 시민운동 발전단계, 그리고 주거와 생활권역이 안정됨으로써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고정적 관심의 차이가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지역 정보참여에 대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는 지역의 시민운동 등 지역적인 시민운동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지역정보네트워크에는 환경단체, 주부모임, 시민단체, 학교 등 지역의 사건에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채널아이 오징어 대축제

인터넷 서비스 채널아이는 5월 대학 축제 기간 중 전국의 대학에서 오징어를 무료로 구워주는 이색 관측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채널아이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아래 전국 25개 대학에 찾아가 자사토고가 새겨진 오징어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구워줄 예정이다.

한편 채널아이는 행사품목을 사과, 감자 등으로 점차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선정 국책대학원

1998학년도 후기 아태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스스로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은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신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21세기 통상 및 외교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경희와 함께 당신의 미래를 열어보지않겠습니까.

본 대학원의 특징

1. 다양한 장학제도
가. 입학자에게 성적에 따라 학비, 기숙사비 등 감면
나. 해외연수비 보조
다. 해외 인턴십 비용 보조
라. 해외 자매교 파견시 학비감면 등
2. 실전적 내용의 교과과정과 국제화 교육
가.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에 인턴이나 연수파견
나. 재학중 경희대 해외자매대학 및 기관에 교환학생 파견 기회
다.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실시(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라. 외국학생과 공동수업 및 공동생활을 통한 국제감각의 배양
마. 영어 강의를 통한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
바. 다양한 실전중심의 특강 및 현장실습

모집학과(○○명)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지역학과(중남미)

전염방법 및 일시

1. 필기시험 : 국문논술, 영문논술
2. 필기시험 일시 및 면접장소 : 1998년 5월 23일(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도서관 4층)

3. 면접 : 국·영문논술 필기시험후 국·영어로 면접

제출서류

1. 지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졸업(예정) 증명서 1통
3. 대학(교)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통
4. 사진(명함판 사진) 2매
5. 자기소개서 및 학업, 진로계획서(A4용지 각 2매 내외, 국문 혹은 영문)
6. 토품, 토인 성적원본 및 사본 각 1부(해당자)
7. 추천서 2매

지원자격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졸업자 및 1998년 8월 졸업예정자
2.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 원서교부 : 1998년 5월 14일 ~ 1998년 5월 20일
2. 원서접수 : 1998년 5월 14일 ~ 1998년 5월 20일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1. 서울캠퍼스 본관 1층 아태국제대학원 입시접수처(우편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버스 134, 720번,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하차)

2.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교학부(중앙도서관 4층)

☎(0331)201-2146~9

전령료

1. 원서대 3,000원
2. 전령료 50,000원
※등기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송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시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교학부

문의처

1.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아태국제대학원
☎(0331)201-2146~9
2. 본 모집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 전리안 go khus → 11.입학안내와 61. 학교게시판
• 하이텔 go khus → 21.입학안내/입시정보와 31. 게시판 경희대 소식.
• 인터넷 www.kyunghee.ac.kr의 아태국제대학원 98후기신입생모집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